



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

| 투자전략/시황 Analyst 한지영, RA 유지윤



미 증시, 가치주 차익실현에도, CPI 안도감, AI 실적 모멘텀 등으로 혼조세

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

12일(수) 미국 증시는 다우지수 신고가 경신에 따른 가치주 차익실현 물량 출회에도, 7월 CPI 컨센 부합에 따른 인플레이션 안도감, 코어워브(+19.3%), 슈퍼마이크로(+19.0%) 호실적발 AI 인프라 수요 호조 전망 등에 힘입어 엔비디아(+3.0%), 마이크론(+4.9%), 샌디스크(+5.8%) 등 반도체 중심의 강세를 연출하면서 혼조세로 마감(다우 -0.04%, S&P500 +0.26%, 나스닥 +0.54%,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+2.49%).

미국의 7월 CPI는 헤드라인(YoY 3.4% vs 6월 3.5%과 코어(2.5% vs 6월 2.6%) 모두 컨센에 부합한 점은 안도 요인. 미-이란 군사충돌로 유가 상승이 출현했음에도, 전월비(MoM) 헤드라인(MoM 0.1% vs 컨센 +0.1%), 코어 CPI(0.2% vs 컨센 0.2%)도 컨센에 부합했다는 점도 긍정적. 슈퍼코어 CPI도 6월 3.1%(YoY)에서 7월 2.8%로 둔화되는 등 인플레이션 상방 압력이 피크아웃하고 있음을 재확인시켜준 모습.

물론 월드컵 특수효과 소멸로 인한 숙박비 급락도 있었으며, 의료 및 항공료 상승 재개 등 잠재적인 서비스 물가 압력은 높은 편이며, 호르무즈 해협 불확실성도 잔존하고 있는 만큼,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완전히 제거했다고 보기엔 어려움. 그럼에도 7월 CPI는 최소한 연준의 9월 인상 리스크를 한층 더 완화시켜줬다는 점에서 증시 중립 이상의 재료였다고 판단(FedWatch 9월 동결 확률은 CPI 발표 전 52%대에서 CPI 발표 후 59%대로 상승).

코어워브, 슈퍼마이크로 등 AI 인프라 관련주 실적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, AI 수요가 단순 GPU를 넘어 클라우드, 전력, 서버 등 핵심 밸류체인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증명한 점도 주목할 필요. 증시 불안의 중심인 AI 수요 피크아웃 불안, 빅테크의 CAPEX 투자 축소 우려가 과도했음을 보여주는 대목. 따라서, 이 같은 “인플레이션 불안 피크아웃 + AI 수요 불안 피크아웃”이라는 조합은 반도체 등 주도주들에게 반등의 연속성을 부여해 나갈 전망.

전일 국내 증시는 호르무즈 해협 불확실성, 미 7월 CPI 대기심리에도, 과매도 인식 지속, 반도체주의 주주환원 기대감 속 대형주 중심의 외국인 순매수에 힘입어 상승 마감(코스피 +3.7%, 코스닥 +0.1%).

금일에는 미국 7월 CPI 컨센 부합에 따른 금리 상승 부담 완화, 마이크론 등 미국 반도체주 급등과 같은 미국발 호재성 재료가 반도체 뿐만 아니라 여타 업종으로도 온기를 확산시키면서 강세 흐름을 보일 전망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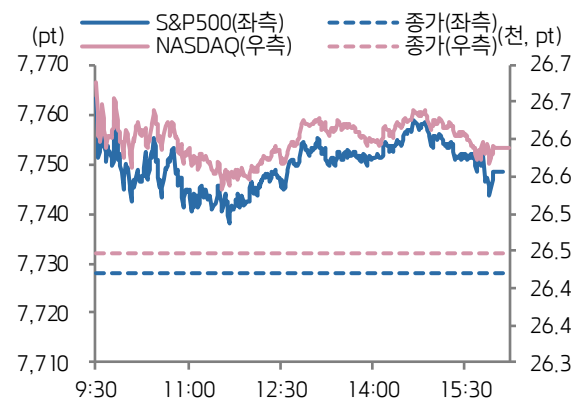
전일에도 VKOSPI는 9% 급락하면서 56pt대 레벨로 내려왔으며, 8월 한 달 동안 약 33% 넘게 하락하는 등 변동성 안정 단계에 들어선 모습. 이에 더해 8월 코스피 성과(-0.3%) 상회 업종이 IT가전(+20.5%), 비철,목재(+20.0%), 건설(+19.8%), 기계(+17.9%), IT하드웨어(+17.1%) 등 24개 업종에 달했다는 점은 반등의 온기가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(반도체 -6.7%, 소매/유통 -2.8%만 부진). 8월 이후 주가가 횡보했던 삼성전자,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업종 역시 전일 급등하면서, 반도체 소외 현상 장기화 가능성을 낮춰준 점도 중립 이상의 요인.

외국인 순매도 규모가 6월 -48.3조원, 7월 -9.9조원으로 크게 축소된 데에 이어, 8월(~12일)에도 -4.5조원에 그치는 등 순매도 압력이 이전보다 완화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부분. 이는 증시 과매도 인식, 글로벌 반도체 디레버리징 완료 기대감, 반도체 등 주력 업종의 2분기 호실적 등 7월에 비해 주가, 수급, 펀더멘털을 둘러싼 환경이 개선되고 있다는 데서 기인.

이번 미국 7월 CPI를 통한 연준 9월 금리 인상 우려 완화 등 매크로상 우호적인 재료를 확보한 점은 추후에도 외국인의 수급 여건 호전에 기여할 전망. 이런 측면에서 주도주인 반도체 이외에도, IT가전, 비철/목재, 건설, 기계 등 8월 이후 수익률 상위권에 있는 업종으로 모멘텀 플레이를 하는 것도 적절한 의사 결정일 수 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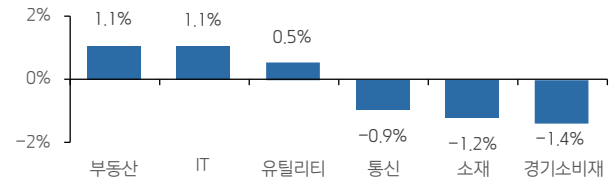
동시에 지금은 변동성 안정화 속 순환매 장세라는 점을 감안 시, 투자 아이디어 차원에서 외국인의 집중 순매수에도 8월 이후 주가 상승세가 제한됐던 업종에도 관심을 가져볼 필요. 대표적으로 “자동차(8월 8거래일 중 7거래일 순매수, 8월 수익률 +5.1%)”, “건강관리(7거래일 순매수, 8월 수익률 +8.9%)”, “증권(7거래일 순매수, 8월 수익률 +0.1%)”, “소매/유통(6거래일 순매수, 8월 수익률 -2.8%)”과 같은 업종이 그에 해당. 즉, 외국인 수급이 먼저 유입되고 있지만, 아직 주가가 따라오고 있지 못한 업종도 바벨 전략에 포함시켜볼 만하다고 판단.

S&P500 & NASDAQ 일종 차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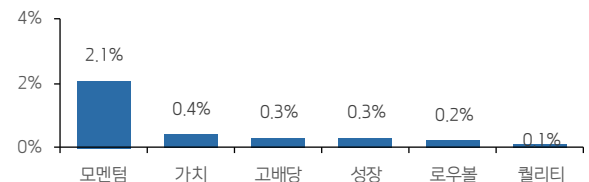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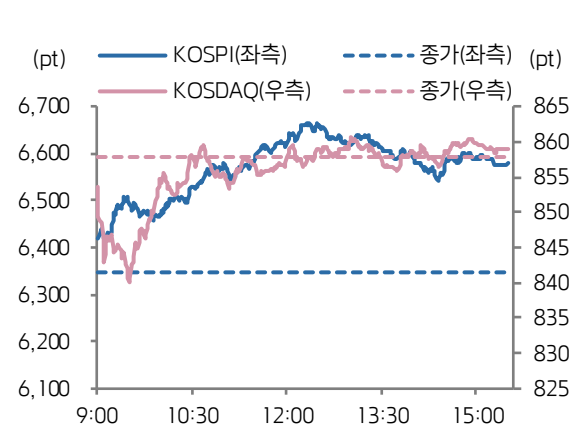


스타일별 주가 등락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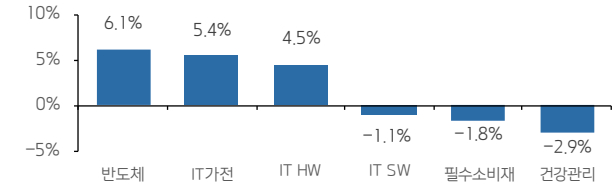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KOSPI & KOSDAQ 일종 차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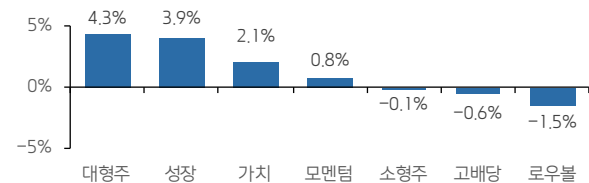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



스타일별 주가 등락률
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주요 종목

종목	종가	DTD(%)	YTD(%)	종목	종가	DTD(%)	YTD(%)
애플	302.25	-1.09%	+12.16%	GM	86.76	-2.9%	+7.17%
마이크로소프트	492.43	-2.26%	+2.28%	일라이릴리	1,220.28	+0.43%	+13.93%
알파벳	343.54	-0.08%	+9.9%	월마트	116.01	+2.43%	+4.54%
메타	578.85	-3.38%	-12.15%	JP모건	365.18	+0.87%	+14.94%
아마존	267.28	-1.83%	+15.8%	엑손모빌	855.60	+1.45%	+620.58%
테슬라	327.51	-1.59%	-27.17%	세브론	196.60	-0.03%	+31.45%
엔비디아	224.09	+3.03%	+20.3%	제너럴일렉트릭	116.01	+2.4%	+4.5%
브로드컴	416.05	-0.01%	+20.65%	캐터필러	855.60	+1.45%	+50.27%
AMD	482.93	+1.82%	+125.5%	보잉	231.20	-0.87%	+6.48%
마이크론	911.29	+4.92%	+219.47%	넥스트에라	85.78	+0%	+8.4%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,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

주요 지수

주식시장				외환시장			
지수	가격	DTD(%)	YTD(%)	지수	가격	DTD(%)	YTD(%)
코스피	6,579.04	+3.68%	+56.12%	USD/KRW	1,417.00	+0.25%	-1.56%
코스피200	1,029.43	+4.26%	+69.88%	달러 지수	99.98	+0.16%	+1.69%
코스닥	858.91	+0.12%	-7.19%	EUR/USD	1.15	-0.14%	-1.87%
코스닥150	1,482.35	-0.19%	-4.2%	USD/CNH	6.75	-0.01%	-3.29%
S&P500	7,748.50	+0.26%	+13.19%	USD/JPY	159.42	+0.09%	+1.73%
NASDAQ	26,588.49	+0.54%	+14.4%	채권시장			
다우	53,770.27	-0.04%	+11.87%	채권	가격	DTD(bp)	YTD(bp)
VIX	855.60	+1.45%	+5623.08%	국고채 3년	855.600	+1223bp	+85264.9bp
러셀2000	3,045.48	+0.61%	+22.71%	국고채 10년	4.285	-1bp	+90bp
필라. 반도체	12,399.38	+2.49%	+75.06%	미국 국채 2년	4.201	-1.3bp	+72.8bp
다우 운송	21,604.65	+1.44%	+24.47%	미국 국채 10년	4.693	+0.4bp	+52.6bp
상해종합	3,946.68	+0.32%	-0.56%	미국 국채 30년	5.257	+1.7bp	+41.4bp
항생 H	8,446.27	-0.96%	-5.24%	독일 국채 10년	3.160	+0.2bp	+30.5bp
인도 SENSEX	77,966.35	-0.24%	-8.51%	원자재 시장			
유럽, ETFs				원자재	가격	DTD(%)	YTD(%)
유럽, ETFs	가격	DTD(%)	YTD(%)	WTI	83.27	+0.08%	+46.06%
Eurostoxx50	6,533.99	-0.26%	+12.82%	브렌트유	88.98	+0.08%	+46.23%
MSCI 전세계 지수	855.60	+1.45%	-15.67%	금	4,467.50	+0.59%	-0.66%
MSCI DM 지수	5,008.52	+0.26%	+13.05%	은	65.70	+1.18%	-6.94%
MSCI EM 지수	1,681.90	+0.99%	+19.76%	구리	661.55	-0.28%	+16.43%
MSCI 한국 ETF	175.87	+5.16%	+80.9%	BDI	3,046.00	-1.2%	+62.28%
디지털화폐				옥수수	480.75	+4.4%	+4.4%
디지털화폐	가격	DTD(%)	YTD(%)	밀	669.75	+3.32%	+18.59%
비트코인	63,546.01	-0.23%	-27.5%	대두	855.60	+1.45%	-19.62%
이더리움	1,884.79	+0.22%	-36.7%	커피	319.95	+1.35%	+1.72%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,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

Compliance Notice

- 당사는 8월 12일 현재 상기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-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고지사항

-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,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 -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, 유가증권의 종류, 종목,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,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. -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, 복제, 전시, 배포, 전송, 편집, 번역,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·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.